문해교육의 개념과 내용 분석 연구

양명희*

〈차 례〉

1. 서론
2. 문해의 개념과 문해교육의 역사
   1) 문해 개념의 확장
   2) 국내 문해교육의 역사와 문해의 개념
3. 문해교육의 내용 분석
   1) 문해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2) 성인 문해 교과서의 내용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한국의 성인 문해교육은 비영리단체의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재는 교육 복지의 개념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도움으로 성인 문해 교과서가 출판되고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문해교육의 틀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짧은 시간 동안 체계화가 이루어지며 정규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이나 유연성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문해 교과서가 현장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동안 교육학에서 이루어진 전문적 지식이 반영되지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않고 내용에 있어 오류가 나타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수준 높은 교육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비문해화의 스펙트럼은 점점 넓어져 문해교육은 기능 문해, 비평 문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 문해, 재정 문해 등으로 확장될 것이다. 문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의 패러다임은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주로 노년층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문해교육은 비문해자의 요구에 맞게 그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

주제어: 문해교육, 성인 문해, 문해 교과서, 기능 문해, 비평 문해, 정보 문해

1. 서론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성인의 문해교육에 대한 국어 국문학계의 학문적 관심은 그간 별로 많지 않았다. 성인의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주로 사회교육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인접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교육계에서도 성인의 문해교육보다는 아동의 문식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이전 주로 비영리단체에서 사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던 문해 교육은 대부분 초등,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해 읽고 쓰는 것이 안 되는 노인층에 집중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문해력이 문제가 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비문해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앙교육연구소(1959)의 조사에 의하면 12세 이상 인구의 비문해율이 22.1%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

의무교육[1] 취학률이 96.4%에 이르게 되면서 비문해 문제가 중요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1990년 조사에서 13세 이상 인구를 표집조사한 결과 비문해율이 1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조사에서는 25.2%가 상황에 따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나 연구자에 따라 문해의 기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단순 수치 비교로는 비문해자의 추이를 추적하기 어렵지만, 비문해의 문제가 국어정책적 측면에서 쉽게 간과될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성인 문해교육이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노인층에 집중되어 오던 문해교육의 대상층도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좀더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립국어원(2008)은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기초 문해력'이란 이름으로 문해율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측정한 것으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언어정책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 국어정책적 측면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은 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문해교육이

---

1) 한국의 의무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8, 15해방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1946년 1월 조선교육심의회는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실시안을 가결, 채택했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법에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와 처벌규정도 명시했고, 의무교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세를 부가하는 조항을 설치했다. 그러나 실제 의무교육이 실시된 것은 1952년 4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부터였다. 문교부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1954년에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취학률이 1954년 82.52%에서 1959년에는 96.4%로 증가했다.(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사전의 '의무교육' 항 참고. http://preview.britannica.co.kr)

제도권 내에 들어오며 교육과정이 정비되고 교과서가 개발되는 등 교육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배경 속에 본고는 문해교육의 개념 변화를 국외와 국내의 문해교육의 역사를 통해 고찰하고, 최근 고시된 성인 문해교육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을 분석함으로써 문해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어정책적 측면에서 문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문해의 개념과 문해 교육의 역사

1) 문해 개념의 확장

문해의 개념은 문해 교육의 역사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글을 읽고 쓰는' 문해(文解, literacy[2])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의미역을 끊임없이 확장해 왔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해의 개념 변화 내지 확장은 국제적인 비문해 퇴치의 노력과 국내 문해교육의 역사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되고, 1946년 창립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인류의 비문해 퇴치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문해능력 내지는 문해교육은

2) 『표준국어대사전』에 '문해'는 글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함'이라 풀이되어 있다. 윤준채, 「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 『새국어생활』 19-2, 국립국어원, 2009, pp. 5-16.에 따르면 문해력이란 말은 라틴어 'literatus'에서 파생되었는데, 고대에는 '문학에 조예가 있는 학식 있는 사람'으로,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었다고 한다.

인간이 지녀야 하는 '인권'으로 이해되었다(김병욱, 2010:3). 1964년 유네스코 총회는 '유엔의 10개년 발전계획 비문해 퇴치 선언'을 채택하였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3R이라고 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reading riting rithmetic)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 문해(functional literacy)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기능 문해는 단순히 읽기, 쓰기를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이나 공동체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또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문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3] 이전의 문해는 기초문해, 또는 전통적 개념의 문해라고 흔히 일컫는다.

문해의 개념은 1970년대 미국으로 망명한 브라질의 교육가 파울루 프레이리에 의해 큰 변화를 겪는다. 억압받는 민중 스스로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문해교육의 개념이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북미에서도 큰 호응을 얻게 된다. 프레이리의 접근 방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치적 문해교육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90년 유네스코는 '국제 문해의 해'(International Literacy Year)를 맞아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 선언'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해 교육은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개념을 표방하였다. 이는 사회, 경제적인 활동의 기초 능력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시민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한 '비판 문해'(Critical Literacy)로 명명되며 이후 문해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유엔은 '문해 10개년 계획'(2003~2012)을 추진하였는데 이 계획은 교육의 질 향상, 읽기, 쓰기, 셈하기와 일상생활에

3) 김병욱, 「문해 능력과 문해 교육 -역사성과 프랑스어권 연구를 위한 현황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71, 한국프랑스학회, 2010, p. 80.에서 유네스코의 'L'alphaétisation'(2006:162)을 인용한 것을 요약한 내용이다.

필요한 능력 습득, 지속적이고 확장될 수 있는 문해 환경의 구축, 삶의 질 향상 등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문해의 개념이 더 이상 읽기, 쓰기, 셈하기의 단순한 기초 문해 능력에 머물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복합적 문해 능력임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읽고 쓰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 문해, 기능 문해, 비판 문해 외에 문화 문해(Cultural Literacy), 가족 문해(Family Literacy), 정보 문해(Information Literacy), 금융 문해(Financial Literacy) 등의 새로운 문해 범주[4]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다차원적 범주로 문해의 개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국내 문해교육의 역사와 문해의 개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5] 민주 국가 건설을 위한 투표권 행사를

---

4) 박인종, 「2009년 성인 문해 교육의 정책 동향」, 『문해 교육, 이젠 달라져야 한다』, 2009 전국 문해 교육 심포지엄, 2009.
"문화 문해와 가족 문해는 세계화에 따라 여행, 이민,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통합시켜 보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문화 문해는 좁은 의미로는 새로운 세계의 문자에 대한 습득에서 다양한 영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로 그 내용의 범위가 넓다. 가족 문해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자식과 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문해 교육 중 하나로 이는 성인과 아동이 함께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OECD는 낮은 문화 문해 능력 및 가족 문해 능력은 결국 낮은 노동의 질을 가져다준다는 것에 집중하며 이에 대한 교육 과정, 교과서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본격적인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이주 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문해 교육 및 언어, 적응 교육이 화두로 되고 있어서 문화 문해 및 가족 문해에 정책적 관심이 배가되고 있다. 2003년 OECD는 일반 금융 문해 원리 개발을 통해 금융 교육과 문해 기준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IGFE (International Gateway for Financial Education)를 설립하여 금융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정보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문해교육의 역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부터 기술하였으나 19세기 말

위해 정부는 80%가 넘는 비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문맹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학교 2학년을 수료한 정도의 국문해득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산력, 기타 기초과목 및 공민 지식을 지도하였다. 문맹 퇴치 사업의 결과 비문해율은 1954년 14%로 감소하였고, 1955년에는 12%, 1956년 10%, 1957년 8%, 1958년 4.1%로 점점 줄어 짧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보였다(신미식 2007:271).

이후 1966년과 1970년에 실시된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서는 비문해율이 각각 8.9%와 7.0%로 조사되었는데[6], 1977년에는 의무교육 취학률이 97%에 달해 정부에서는 이후 비문해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식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부 차원의 문해교육 역시 보이지 않는다.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은 주로 야학이나 교회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7] 그나마 비판 문해에 기반한 교육적 색채 때문에 정부의 탄압을 받아 명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1959년 중앙교육연구소는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전국 문맹자 표본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국의 12세 이상 인구의 0.5%를 대상으

국어학자와 계몽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된 국문국자운동, 한글교육운동도 넓게 보면 문해교육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1894년 고종의 칙령으로 국문이 공식문서의 표기문자로 사용되고, 근대교육이 시작되며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공식 문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6) 인구총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문해력(문맹률) 조사는 “글을 읽을 줄 아느냐?”, “글을 쓸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을 직접적으로 묻는 형식으로 기초문해력 조사라 할 수 있는데 직접 묻는 방식이라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7) 신미식, 「한국 여성노인의 문해교육 현황과 정책」, 『한국동북아논총』 45, 한국동북아학회, 2007, p. 270.에서는 이 시기를 문해교육 암흑기라 명명하고 있다. 신미식은 문해교육의 명암에 따라 국내 문해교육의 역사를 문해교육 도입기(해방 후~1959), 문해교육 암흑기(1960~1980년대 말), 문해교육 재도약을 위한 준비기(1980년대 말부터~2005), 문해교육 재도약기(2006~)로 나누었다.

로 가구 방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22.1%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해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문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1958년의 비문해율 4.1%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문해의 개념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즉 1958년 조사에서는 국민학교 2학년 정도의 국문해득력(기초 문해)이 기준이었다면 1959년 조사에는 유네스코의 기능 문해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문해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8] 1992년 2월 서울, 부산, 대구에만 120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양병찬 2005:216), 한국문해교육협회(1992),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1999), 전국야학협의회(2000), 한국문해기초교육연합회(2004) 등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활성화된 문해교육은 2000년대 들어서 정부 차원의 문해교육 지원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1년, 2002년 두 차례의 문해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9](1999/2007), 평생교육진흥원 개원(2008), 성인 문해 교과서 개발(2007),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고시(2009) 등 정부의 문해교육 지원책이 마련되기에 이른다.

2000년대 들어서 정부 주도로 몇 차례의 문해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 목적에 따라 문해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발원의 2001년 조사[10]는 국제 비교를 위한 조사로

---

8) 1989년과 1990년 2년간의 연구 조사로 전국적 규모의 문해실태 조사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본조사의 조사지는 초보 수준의 문자문해, 기초 문해, 생활기능 문해로 구성되었다. 199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 비분해자 9.1%, 생활 기능 비문해자 9.1%로 비문해율이 18.2%에 달한다.

9) 성인문해교육에 해당하는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규정은 2007년 개정부터 명시되었다.

10) 1994년부터 1998년까지 OECD 국가를 포함하여 20여 국가에서 실시된 성

문해를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문해가 더 이상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닌 좀더 복잡한 기술을 종합한 것임을 의미한다(이희수 외 2003:199). 실태 조사는 유네스코의 문해 도구인 산문 문해(prose literacy), 문서 문해(document literacy), 수량 문해(quantitative literacy)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되었다.[11][12] 2002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자체 개발한 성인 문해 조사 도구(읽기, 쓰기, 셈하기)로 20세 이상의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기초 문해를 3수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13]

인 문해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도구를 번역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을 조사하여 국제 비교하였다.

11) 산문 문해, 문서문해, 수량문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문 문해: 논설, 기사, 시, 소설을 포함하는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 문서 문해: 구직 원서, 급여 양식, 대중교통 시간표, 지도, 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 수량 문해: 금전출납, 팁 계산, 주문양식 완성, 대출이자 계산 등 인쇄된 자료에 포함된 숫자를 계산하거나 수학공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문해 능력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문서 문해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2) 가장 최근에 수행된 국제 문해 비교 조사는 국제 성인 문해력 및 생활 기능 조사(ALL, Adult Literacy and Lifeskills)인데, 이것은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이전 문해 조사(2001)에서 활용되었던 산문 문해(prose literacy), 문서 문해(document literacy), 수량 문해(quantitative literacy)에 문제 해결, 협동, 정보 통신 기술 등과 같은 성인의 생활 기능과 관련된 문해 영역이 추가되어 실시되었다. 2003년 버뮤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6개 국가의 16~65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 및 생활 기능 문해가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이루어졌다.

13) 조사 대상 전체의 74.8%(2,247명)가 기초 문해 3수준(일상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글을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수준), 16.8%(504명)가 기초 문해

2008년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여기서 문해력은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문해의 개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1년 조사와 같지만,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개발 틀은 학생의 문해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국가 수준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2002)와 OECD/PISA의 문해 성취도 국제 비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문해를 사실적 문해, 추론적 문해, 비판적 문해로 구분하였다.

<표 1> 문항 출제 계획표(국립국어원 2008:23)

하위 요소	실용			교양		
	일상생활	공적생활	미디어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사실적 문해	A1 메모, 영수증, 초대장, 명함, 여행지, 편지	B1 노선도, 이력서, 가정통신문	C1 안내문(선거 공지 등), 방송편성표, 표 예매	D1 소설, 수필, 문학이론	E1 경제, 육아, 요리, 스포츠	F1 기후와 생활, 정보통신, 생태, 동식물
추론적 문해	A2 제품 설명서, 복약설명서, 안내문, 일기예보	B2 기사문, 관광지안내서	C2 광고, 세일 전단지, 인터넷사이트	D2 언어, 종교, 미술, 교육, 인류문명	E2 풍습, 계약서, 자연, 정치제도	F2 의학정보, 환경문제, 통신
비판적 문해	A3 은행송금, 증명서 발급, 전입신고서, 우체국 용무	B3 공문서, 구인광고, 부동산 정보	C3 신문사설, 공고문	D3 역사, 지리, 철학	E3 법령문, 전통문화	F3 신기술, 우주과학, 국제관계

2수준(글을 읽고, 쓰고, 셈할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준), 그리고 8.4%(245명)가 기초 문해 1수준(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서 평가 내지 측정 도구가 다시 교육에 환류된다는 점에서 보면 국립국어원의 문해 측정 도구는 문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도구는 비문해자의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어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문해교육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비판적 문해'의 개념은 1970년대 국내에 소개되었다 탄압을 받은 비판 문해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문해교육에서 비판 문해에 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14] 제도권의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가 비판 문해의 개념으로 교육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성인 문해 학습자의 외연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으로 넓어지며 문화 문해, 가족 문해의 개념이 등장하고, 정보화의 격차로 인한 문해력 저하로 정보 문해의 개념이 성인 문해 교육에 수용되고 있다. 문화 문해, 가족 문해, 정보 문해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해의 범위를 언어교육적 개념에 기반하여 기초 문해, 기능 문해로 제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15]

---

14) 신미식 등이 대표적이다. 신미식, 「한국 여성노인의 문해교육 현황과 정책」, 『한국동북아논총』 45, 한국동북아학회, 2007, pp. 275-276은 여성노인에 대한 문해교육은 문해능력을 갖는 것뿐 아니라 절망감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비판적 문해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15) 본 연구는 국어국문학계가 문해교육의 정착을 위해 해야 하는 연구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서는 문해교육은 논외로 한다.

3. 문해교육의 내용 분석

1) 문해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문해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해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틀이 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에 의해 그 내용과 형식이 설계되기 때문에 교육 목표의 내용 및 수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 문해에는 읽기, 쓰기 외에 셈하기가 포함된다. 셈하기는 수학이라는 교과로 대체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로 읽기, 쓰기와 관련한 교육 목표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초 문해의 개념에서 읽기와 쓰기는 글을 깨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1950년대 당시 문해교육의 목표는 국민학교 2학년 수준의 문해였고, 이후 초등교육 의무화로 국민학교 6학년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16] 2000년대 이후에는 중학교 과정이 국민 의무 교육이 됨[17]에 따라 문해의 수준 또한 중학교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정찬남 외, 2004).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펴낸 성인문해 교과서가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나누어 개발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18]

---

16) 최운실, 『한국의 문해 실태와 문해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0.에 따르면 1990년 조사 당시 한국의 문해교육 수준은 국민학교 6학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명문화하였는데 제26조에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김병욱, 「문해 능력과 문해 교육 -역사성과 프랑스어권 연구를 위한 현황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71, 한국프랑스학회, 2010, p. 72.

17)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 산간 지역부터 시작하여 2002년 신입생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18) 이러한 논의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 현재 중졸 미만자 660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맥을 이어오던 문해교육은 국가가 비문해자의 교육 지원에 나서게 되며 교재를 출간하고 교육과정을 개발, 고시하는 등 이전에 부족했던 문해교육의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은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장 제2조에 정의된 '문자해득교육'의 정의이다.

>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의 '문해'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문해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기초 문해력에 기반한 기능 문해의 개념이라 하겠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문자해득 교육과정'(이하 '문해 교육과정'으로 약칭)을 고시하였는데 이는 2007년 성인문해 교과서가 발간되고 난 후 고시된 것으로 성인문해 교과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으며, 지역별, 학습대상별로 교육 현실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문해 교육과정'에는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 가. 성인 학습자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수리 능력을 함양하고 활용할 수 있다.
> 나. 인간과 환경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다.
> 다. 삶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함양한다.

명을 포함한 성인문해 교육 지원을 약속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2006), "성인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2007) 등의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다.

(가)는 기초 문해력 교육이라 할 수 있고, (나)(다)는 해석에 따라서는 비판 문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과 편성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국어, 수학, 사회, 도덕 등 초등 수준의 교과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해 교육과정 1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성인 학습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만으로 성인 초등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다. 초등학교 교과를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 변형하여 편성한다.
> 라. 초등학력 이수 과정을 1, 2, 3단계로 구분하고, 낮은 단계에서는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높은 단계에서는 교육 기관 간의 통일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통일성을 추구한다.
> 마. 단계별 이수제와 평가제를 확립하여 성인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에서부터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밑줄 필자)

(나)를 보면 현행 문해 교육과정은 학력 인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학습 동기를 고려한 학습과정의 특성화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며, 학력 취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비문해자의 대부분이 60~70대의 성인이라는 점과 앞으로 비문해자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음에도 문해 교육이 필요한 성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문해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능 문해의 개념을 고려할 때 초등 수준, 중등 수준의 정규 등급 기준보다 문해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마)의 단계별 이수제와 평가제는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정규 교육과정이 평가제에

의해 학년 승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수제[19]만으로 충분하다.

(다)는 초등학교 교과를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통합, 변형, 편성하도록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성인 비문해자를 교육한 경험이 있는 현장 경험 전문가들에 의해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20] (라)는 문해 교육과정이 학력 인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가 올라갈수록 체계적이며 통일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기술한 것이다.

4장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는 "초등 학력을 지니지 못한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해득 교육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의 문해교육은 초, 중등 학력 인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문해교육이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인지는 요구도 분석 조사 등을 통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19) 현재 교육과정에 따르면 연간 160시간-240시간-240시간 수업을 받아야 초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160시간은 주 2회 2시간씩 40주, 240시간은 주 3회 2시간씩 40주에 해당한다.

20) 성인 비문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비문해자의 생애를 다룬 연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여성노인, 농촌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 등을 한 연구가 있다. 학습자 특성을 교육과정에 직접 연결한 연구로는 육효창, 「농촌 노인들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국어문학』 16, 동국어문학회, 2004, pp. 83-109.이 있고, 정찬남 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의 문해교육」, 『한국의 문해교육』, 한국문해교육협회 편, 서울: 문음사, 2005. 은 문해 학습자의 특성으로 학습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있다.

2) 성인 문해 교과서의 내용 분석

(1) 성인 문해 교과서의 현황

평생교육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성인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민간 단체나 야학에서 사용된 교재는 자체 개발한 교재이거나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 이 중 초등학교 교과서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나 표현이 학습자에게 맞지 않는 것은 물론 학습자들에게 본인들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는 자기 멸시감을 일으킬 수 있어 문해 교육 교재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21] 그러나 성인 문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재를 개발하기에는 교수자, 교육 연구가, 학습 환경 등 정상적 교육에 필요한 어느 요소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교과서를 쓰는 것은 오랜 관행이 되었다.

물론 문해 교육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도 여러 종이다. 청학야학교의 '희망을 키우는 우리 책', 대구아름다운학교의 '국어'(국어 기초, 국어 1단계~10단계), 정찬남 '성인 청소년을 위한 한글한글'(8권), 안양 시민대학의 '우리글'(1~3권), 푸른시민연대의 '한글 초, 중, 고급'(5권), 전국문해, 성인기초교육협의회의 '문해교육'(국어 1~4), 전라북도교육청의 '토속어로 익히는 우리 글 공부'(1~2), 경남평생교육센터의 '성인반용 한글 공부', 부천문해교육협회의 '지혜의 등대'(2권) 등이 있다(김대석, 2008). 이 교재들은 비문해자를 가르친 현장 교사들의 경험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자, 모음의 교수 순서나 사용된 문법 용어 등에 오류가 나타나 체계적인 국어교육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비체계성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문해 교과

---

21) 대표적으로 신미식, 「한국 여성노인의 문해교육 현황과 정책」, 『한국동북아논총』 45, 한국동북아학회, 2007, p. 268이 있다.

서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 이는 현장전문가를 집필진으로 삼아 현장에서 사용한 교과가 교재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22] 성인 문해교육기관에서 성인문해 교과서가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에 대한 전국적 조사 결과는 아직 없다. 부분적으로 노병윤(2009)에서 성인 문해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사는 성인 문해교과서를 주로 사용하는 전국의 문해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인 문해교과서 활용에 대한 전국적 조사는 아니다. 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인지 성인 문해교과서 사용률이 83.1%에 이른다. 그러나 학습자 상황에 맞지 않아(66.7%),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해(10.2%)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성인 문해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학습자 상황과 차이가 나고(47.6%),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으며(13.4%), 지나친 전문지식을 요구하거나(12.1%), 대도시 중심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7.8%)고 비판하고 있다. 이 중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다, 지나친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등은 교육내용적 측면으로 3장의 주요 분석 내용이다. '학습자 상황에 맞지 않는다, 대도시 중심이다'와 같은 교육 외적 내용은 앞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성인 문해 교과서는 초등과정, 중등과정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초등과정(2007년)은 1단계 소망의 나무 1~4권(초등학교 1, 2학년 과정), 2단계 배움의 나무 5~8권(초등학교 3, 4학년 과정), 3단계 지혜의 나무 9~12권(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학과정(2009년)은 국어 1~3으로 구성되어 있다.[23] 초등과

---

22) 김대석, 「성인 문해교과서 개발과 보완점 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32.은 "그동안 현장에서 쓰인 문해교과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하였다.

23) 한국문해교육협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올해 초 초등학력 인정

정은 워크북이 나와 있고, 중학과정은 지도서가 있다.

(2) 성인 문해 교과서의 내용 분석[24)]

문해 교육과정에는 수준별, 교과별 세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초등과정 1단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초등과정 1단계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문자 기초	◦자음자, 모음자 인식 ◦한글 자모 구별하기 ◦글씨 쓰기 기초
문자 해득	◦낱말 이해 ◦낱말의 짜임 익히기 ◦음소 인식 ◦음절 인식 ◦낱말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낱말 정확하게 쓰기 ◦문장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문장 정확하게 쓰기
의미 구성	◦문장 읽고 이해하기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25)] ◦글로 표현하기 ◦기초 문법 익히기 ◦글 감상하기 <예시> 속담 이해하기, 시제 이해하기, 짧은 글 읽기, 짧은 문장 구성하기, 으뜸꼴 활용 등

문자 기초, 문자 해득, 의미 해득으로 삼분되어 있으며, 의미 구성 부분에 진정한 읽기와 쓰기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소망의 나무 1~4권(1단계)은 다음과 같이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을 받은 문해 학습자들이 중학 교과서가 미처 다 개발되지 않아 중학 과정 이수를 1년간 연기한 상태라고 한다.

24) 본고는 지면상 초등학교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주 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학 교과서는 국어, 영어, 수학만 개발되고 사회, 과학 등의 교과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25) '글의 내용 파악하기'로 표현을 수정해야 문장 단위에서 문장이 결합된 글의 단위로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1단계 학습 목표

단원	1권 학습목표	2권 학습목표	3권 학습목표	4권 학습목표
1	연필을 바르게 잡는 법	된소리	받침글자	사이시옷
2	ㄱ, ㄴ	ㄲ	ㄱ받침, 으뜸꼴	사이시옷
3	ㄷ, ㄹ	ㄸ	ㅋ받침	단어의 짜임(합성어)
4	ㅁ, ㅂ	ㅃ	ㅇ받침	은/는
5	ㅅ, ㅇ	ㅆ	ㅂ받침	조사 이/가, 을/를
6	ㅈ, ㅊ	ㅉ	ㅍ받침	마저, 만, 도, 조차, 와/과
7	ㅋ, ㅌ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	ㄴ받침	단어의 짜임(파생어)
8	ㅍ, ㅎ	모양은 같으나 뜻이 다른 말	ㄹ받침	겹받침 ㄱㅅ, ㄴㅈ
9	자음 정리	흉내 내는 말	ㄱ, ㅋ, ㅇ, ㅂ, ㅍ, ㄴ, ㄹ 받침 글자 정리	겹받침 ㄴㅎ, ㄹㄱ
10	모음	ㅐ, ㅔ	ㅅ받침	겹받침 ㄹㅁ, ㅂㅅ
11	ㅏ, ㅑ, ㅗ, ㅛ	ㅒ, ㅖ	ㅈ받침	겹받침 ㄹㅂ, ㄹㅅ
12	ㅓ, ㅕ, ㅜ, ㅠ	ㅘ, ㅙ	ㅊ받침	겹받침 ㄹㅌ, ㄹㅍ, ㄹㅎ
13	ㅡ, ㅣ	ㅝ, ㅞ	ㅁ받침	쌍받침 ㄲ, ㅆ
14	모음 정리	ㅚ, ㅟ	ㄷ받침	겹받침 정리
15	쓰기	ㅢ	ㅌ받침	겹받침 정리
16	흉내 내는 말	비슷한 소리가 나는 낱말	ㅎ받침	겹받침 정리
17	짧은 글 읽기	읽고 쓰기	헛갈리기 쉬운 말, 받침소리	내가 사는 곳
18	배운 내용 정리	외모와 성격을 나타내는 말	고향의 봄, 내가 좋아하는 것	짧은 글 짓기

표 3)을 보면 자음, 모음의 제시 순서, 받침소리의 제시 순서에 규칙성이 없고, 단어 형태의 짜임을 익히는 데 크게 필요치 않은 사이시옷이 두 단원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 구성에서 보조사 '은/는'이 먼저 출현하여 문장 구성의 틀을 익히는 데 역시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낱말 읽기와 쓰기를 익히기 위한 예들이 다음 예처럼 단계에 맞지 않거나 잘 쓰지 않는 단어, 동음이의어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나 학습자를 당황하게 한다.

(1) 고니, 기초, 오디, 더미, 마고자, 브라보, 으스스, 처마, 히트, 자투리, 자비, 샤프(1권 1과)

자음, 모음을 가르치기 위한 어색한 낱말의 예는 다음 글에서도 발견된다.

(2) 꾸꾸 비둘기 소리 쪼르르 물 흐르는 소리 바삐 지나가는 세월 속에 또다시 떠오르는 어머니(2권 1과 6쪽)

된소리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글로, 비둘기 소리는 '구구'가 더 자연스럽고 물 흐르는 소리는 '졸졸'이 더 전형적이다.

문장 쓰기는 1권 16과에 처음 나오는데 다섯 문장 중 네 문장이 주어가 없이 제시되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호로로 소리가 나다. 우르르 무너지다. 아기가 도리도리하네요. 사르르 아파요. 포르르 날아가요.(1권 16과 90쪽)

내용의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가 개발된 것은 선후 내용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복합 모음의 경우 2권 17과(96쪽)에 자음과 복합 모음이 결합된 음절표가 제시되는데 앞

서 제시된 11개의 모음이 모두 정리되어 있지 않고 'ㅐ, ㅔ, ㅘ, ㅚ, ㅝ, ㅟ, ㅢ' 등 7개의 모음만 정리하고 있거나, 받침소리의 경우 3권 17과(95쪽)에 받침에 따른 소리가 정리된 표가 나오는데 받침을 배우기 위해 제시한 순서와 동일하지 않다.

1단계의 최종 목표는 글을 읽기, 글로 표현하기, 감상하기로 1단계 마지막 과에는 '공부하는 기쁨과 보람'을 글로 쓰는 과제가 주어진다. 그러나 1~4권에 주로 사용된 텍스트가 문장 단위이고 글 단위는 동요나 시가 대부분이어서 아마도 짜임새 있은 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단계는 이처럼 주로 문자를 해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본격적인 읽기와 쓰기는 2단계 교과서의 학습목표이다.

문해 교육과정에는 2단계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2단계 교육과정은 기초단계인 1단계와 학력인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로서 1단계에서 학습한 기초 문해력을 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확인하고 적용하여 문해능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실현해가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여 학습과 생활현장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고 이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교육내용은 실생활의 다양한 활동(축하 카드 쓰기, 전화 메모하기, 대중교통 시간표 보기, 교통 표지판 보기, 달력 보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1단계가 기초 문해에 해당한다면 2단계는 기능 문해에 해당한다. 4권 모두 27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과 외에 수학과 내용이 1단계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래어는 영어 단어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2단계의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을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5권의 단원명을 보면 시장, 슈퍼마켓, 병원, 버스, 기차, 날씨, 달력, 명절, 생신, 광고지, 포스터, 양념, 옷차림, 세탁기호, 보건소, 119, 교통표지판, 직업, 도시 등 소재가 다양하다. 사

용된 텍스트도 영수증, 안내문, 광고지, 포스터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서와 가요(조영남의 '화개장터',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가 등장한다.

5권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6권부터는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학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직유와 비유,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등의 이어주는 말,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의 글의 종류, 간접화법, 시제, 경어법 등이 그것이다.

이어주는 말을 이용하여 문장 확대를 가르치는 것은 쓰기에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접속어보다 연결어미의 사용이 더 빈번하다는 점에서 이어주는 말과 연결어미의 연관성을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장의 종류에서는 제시된 대화문이 특정한 어미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어미 형태가 잘못되어 있어 혼동될 여지가 있다.

(4) 실례합니다. 아동복 코너는 몇 층에 있나요? …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데 놀이방이 있나요? … 지하철역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6권 54쪽)
(5) 권유하는 말은 말하는이가 듣는이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대개 '~자', '~시다' 등의 말로 끝이 납니다. (6권 58쪽)

(4)는 '묻는 말을 익혀 봅시다'라는 활동에 제시된 대화문의 예로 의문형 어미 '-나요'만 제시되어 있고, (5)는 청유문과 명령문을 배우기 위한 대화 글을 읽은 후 제시된 설명으로 기본형 '-시다'의 정확한 형태는 '-ㅂ시다'이다.

제시된 대화문과 덧붙여지는 설명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동을 일으키는 예는 시제에서도 발견된다.

(6) 엄마: 여보세요. 미경이니? 일찍 오라니까 아직 안 오고 뭐해?
딸: 네,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2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6권 80쪽 삽화의 대화를 글로 옮김)

위 예는 시제를 제시하기 위한 삽화의 대화로 '-고 있다'(진행상)와 '-ㄹ 것이다'가 제시되어 있고, 현재형의 설명에는 '-이다, -ㄴ/는다, -ㅂ니다/습니다'로 끝맺는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다. 그리고 설명에 대한 예문은 '-ㄴ다'를 사용한 예만 세 문장 나온다. 적어도 형용사 뒤에 오는 '-다'의 사용을 보여주어야 하며, 진행상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 사건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교수해야 한다.

6권 101쪽에는 경어법의 예로 압존법의 문장이 나오는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식사했어요"와 같은 문장은 이미 국립국어원의 <표준화법 해설>(1992)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하여 "할아버지, 아버지 식사하셨어요"로 쓰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로 보기 어렵다.[26] 경어법은 한 과로 구성되어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어졌는데 이는 성인 학습자들이 경어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결과로 보인다.

6권 뒷부분에는 언어예절(인사, 전화, 감사, 축하, 위로)이 다뤄지는데 상황별로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 줌과 동시에 전화 메모하기, 감사 편지 쓰기, 축하 카드 쓰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쓰기를 학습할 수 있다.

7권은 소리의 장단, 소리는 같으나 뜻과 형태가 다른 단어, 표준어와 사투리, 관용어, 반의어, 유의어, 준말,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어휘와 쓰기에 필요한 규범 학습이 주내용을 이룬다. 12과부터는

---

26) 오히려 직장이나 학교에서 직장 상사를 더 높은 직장 상사에게 얘기할 때나 선배를 선생님에게 얘기할 때 "부장님, 김 과장님 잠깐 외출하셨어요?"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쓰기 연습이 시작되는데 광고 문구 만들어 보기, 속담이나 격언으로 표현하기, 시와 시조 이해하기,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 쓰기 등의 과제가 제시된다.

8권은 7권보다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문기사, 일기, 수필, 삼행시, 축하카드, 초대장, 일정표, 편지, 자서전, 소개글, 약도, 애국가, 전기, 약 지시문, 교훈 등이다. 정서 표현의 장르만을 생각해 볼 때 7권에서 시를 쓰고 8권에서 일기, 편지, 수필 등의 글을 쓰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 또한 7권에 시와 시조라는 문학적 텍스트가 여러 편 실린 것과 달리 8권에는 주로 실용문들이 많이 실려 있어 교재 안의 장르적 균형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권 19단원의 글은 논설문에 가까운데 설명문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등 세부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 앞으로 국어지식뿐 아니라 읽기교육과 쓰기교육에서 연구된 교육 내용, 교수법이 교과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단계 교과서에는 국어, 수학, 영어뿐 아니라 과학, 사회[27], 한문 교과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각 권은 27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학 텍스트와 실용 텍스트가 실려 있다. 먼저 문학 텍스트로는 전래동화(샘물 이야기), 전설(아랑), 소설(흥부전, 몽실언니, 메밀꽃 필 무렵), 희곡(다시 찾은 봄)이 등장하고, 실용 텍스트로는 이미 앞서 나온 광고, 일기 등이 단계에 맞게 맞춰 나오고 전세계약서, 차용증,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 은행 입금표, 도서관 이용 신청서, 인터넷 가입 화면 등이 새로 등장한다. 여러 교과가 통합되어 있어 글의 주제도 역사, 환경, 노령화, 저출산 등 다양하며 쓰기에서는 묘사하기, 설명하기, 안내하기, 견해와

27)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으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다"가 포함되어 있어 비판적 문해의 개념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장을 밝히는 논설문 쓰기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어 자연스럽게 비판적 문해의 개념에 접근하게 된다.[28]

3단계에는 9권 21과에 '움직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용언의 어미변화가 다루어지는데 변칙 용언의 활용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 기본형의 예와 연습문제를 통해 추론하면 '으탈락(슬프다), ㄷ변칙(듣다), 르변칙(흐르다)여 변칙(말하다), ㅂ변칙(귀엽다), ㄹ변칙(울다)'만 있고 'ㅅ변칙(잇다), 러변칙(푸르다), ㅎ변칙(하얗다)' 등은 교육 내용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3단계는 12권의 25과 연극하기, 27과 문집 만들기, 28과 과정을 마친 소감 쓰기로 마무리된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성인 문해교육은 문해교육에 뜻을 둔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사회교육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재 교육복지의 개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교과서가 개발되고 교육과정이 마련되는 등 점차 문해교육의 뼈대가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급하게 체계화를 이루다 보니 교과 과정이 지나치게 정규 과정에 맞추어 개발되거나 또는 교과 영역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교과서가 개발되다 보니 내용의 오류와 방법적인 미비함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논의했듯 문해교육의 방향이 원래의 취지인 문해화보다는 학력 인정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

28) 10권 17과에서는 자녀들의 출산 문제에 대해, 11권 17과에서는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쓰도록 하였다.

한다. 학습자들의 학력 인정에 대한 요구가 높이 나타난다고 해서 실제 교육과정을 정규 과정에 맞추어 실생활과 관련된 교과 내용보다 학문적 교과 내용에 충실하게 되면 또다른 비문해자가 양성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비문해자의 스펙트럼은 다양해질 것이며 문해교육의 영역도 한글, 수, 영어와 같은 기초 문해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정보 문해, 금융 문해 등 점차 다양해질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처럼 고령의 학습자들에게 제한된 문해교육의 패러다임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비문해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문해교육에 영역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영역에서 연구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문해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문해교육의 교과 내용, 교수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좀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결과』, 서울: 국립국어원, 2008.

김대석, 「성인 문해교과서 개발과 보완점 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32.

김병욱, 「문해 능력과 문해 교육 -역사성과 프랑스어권 연구를 위한 현황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71, 한국프랑스학회, 2010, pp. 69-95.

김순임, 「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개요」, 『새국어생활』 19-2, 국립국어원, 2009, pp. 17-32.

김신일, 「한국 성인 문해 교육의 발전 과제」, 『성인 문해 교육을 통한 학력 인정 방안 세미나 자료집』,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2008.

김재춘 외,『성인 문해교육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노명완・이차숙,『문식성 연구』, 서울: 박이정, 2002.
노병윤,『한국의 성인문해교육의 현황과 성인문해 교과서의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노일경, 허준,「학습자 수준에서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평생교육학연구』17-3, 2011, pp. 25-46.
박소연,「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평가 요구분석」,『평생교육학 연구』15-3, 한국평생교육학회, 2009, pp. 1-20.
박인종,「2009년 성인 문해 교육의 정책 동향」,『문해 교육, 이젠 달라져야 한다』, 2009 전국 문해 교육 심포지엄, 2009.
박인종,「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 교육 정책」,『새국어생활』19-2, 국립국어원, 2009, pp. 33-53.
신미식,「한국 여성노인의 문해교육 현황과 정책」,『한국동북아논총』45, 한국동북아학회, 2007, pp. 261-282.
신미식,「하나의 담론으로서 한국 문해교육의 비판적 연구」,『한국동북아논총』55, 한국동북아학회, 2010, pp. 273-293.
육효창,「농촌 노인들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동국어문학』16, 동국어문학회, 2004, pp. 83-109.
윤복남,『한국 문해교육의 사회사적 고찰』, 고대 박사학위논문, 1991.
윤복남,「문해교육의 의의와 문해 교사의 문제」,『한국교육학연구』8-2, 한국곡육학회, 2002, pp. 255-274.
윤복남,「문해교육의 개념과 기준」,『한국의 문해교육』, 한국문해교육협회 편, 서울: 문음사, 2005.
윤준채,「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새국어생활』19-2, 국립국어원, 2009, pp. 5-16.
이경아 외,『문해 교육교원 연수과정 개발 연구』,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2008.
이지혜,「학습사회에서 성인 문해의 의미」,『평생교육학연구』9-2, 한국평생교육학회, 2003, pp. 57-74.
이지혜,「문해교육에서 '문해됨'의 의미 - 문해학습자의 정체성을 중

심으로」,『평생교육학연구』 17-3, 평생교육학회, 2011, pp. 1-24.
이희수 · 한유경 · 박현정 · 이세정 · 이정희 · 권재현,『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희수 · 이지혜 · 안도희 · 변종임 · 박상옥 · 이현석,『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2.
이희수 · 박현정 · 이세정,「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와 OECD 국제비교연구」,『비교교육연구』 13, 한국비교교육학회, 2003, pp. 193-219.
전은경,「성인 문해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방안」,『성인 초등학력인정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문해교육협회, 2008.
전은경,「다문화 사회의 이민자를 위한 문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하여 -」,『새국어생활』, 19-2, 국립국어원, 2009, pp. 55-67.
정찬남 외,「한국여성생활연구원의 문해교육」,『한국의 문해교육』, 한국문해교육협회 편, 서울: 문음사, 2005.
최돈민 외,『전국문해교육기관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최운실 · 백은순 · 최상근,『한국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9.
최운실 · 백은순,『한국의 문해 실태와 문해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0.
최운실,「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성인기초능력 개념 모형과 연구동향 분석」,『평생교육학연구』 12-4, 한국평생교육학회, 2006, pp. 225-251.
황종건,「문해 운동의 역사적 의의」,『한국의 문해교육』, 한국문해교육협회 편, 서울: 문음사, 2005.
The New London Group,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 1996, pp. 60-91.
Freire, Paulo & Macedo, Donaldo, *Literacy*, Westport, Connecticut: Bergin & Garvey, 1987.

A Study on the Concept and the Contents of Literacy Education in Korea

Yang, Myung-Hee

Korean adult literacy education was started by volunteer workers i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is now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t the education welfare level. By government aid, textbooks and formal teaching curriculums are being developed, and eventually the framework for literacy education is getting built.

However, because literacy education was systemized by government backing in a short period of time, curriculums are too similar to regular courses and lack flexibility. Also, since most textbooks are developed by field experts without professional help from specialties in academic subjects, there are errors in contents and inadequate methodological approaches.

As written above, these problems derive from approaching literacy education in achieving higher level of education, ra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literalization.

In the future, the spectrum of illiterates will get wider, and the field of literacy education will not only be restricted to Hangul, number, English but also be expanded to information literacy, financial literacy, etc. Considering the upcoming changes in literacy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resent paradigm, which provides literacy education only to the elders, an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appropriate for individual illiterates.

Key words: Korean adult literacy education, curriculums for the illiterate, textbook for the illiterate, literalization, functional literacy, critical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financial literacy

양명희
소속: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136-71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10-9961-2109 / 02-820-5088
전자우편: yangmh@cau.ac.kr

이 논문은	2013년	2월	27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

`